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237 번

제 1 독서 : 이 사 60, 1-6
제 2 독서 : 에 페 3, 2-3, 5-6
복 음 : 마 태 2, 1-12

숨 정 이

발행 원주교전주교구
편집 흥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님에게 가는 길

업 기 봉 신부

오늘은 계해년(癸亥年)의 새해 첫 주일이다. 교회전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신 하느님이 이제 온 만민에게 나타나심을 기념한다.

공헌축일의 제1독서는 이사가 예언서의 가장 환희에 넘치는 구절의 하나인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받아라……”(60, 1-6)라는 구절이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이방인들이 모여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유산을 차지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복음(마태 2, 1-12)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소개함으로써 예수께서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신다는 내용이다. 이제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와 그분을 찾게 되고 자신들의 귀중한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고 예배한다.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에서 떠남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리는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져서 떠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소중한 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은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 누에는 거칠고 푸른 빵잎을 먹고도 부드럽고 하얀 명주실을 만든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고행(苦海)이 아니라 푸른 빵밭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치는 고통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조명(照明)하여 내 인생(人生)의 부드럽고 하얀 명주실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生命)과 사랑과 시간(時間)을 주셨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생명인 빛과 사랑인 물감으로 시간인 흰 백지 위에 내 인생의 값진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오늘 성서에서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생명과 사랑과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전주 해성중고 종교교감)



신뢰 회복

—우리의 살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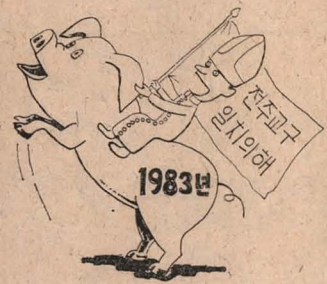
또 새날이 밝았다. 어제와 똑같은 새날이지만, 새해의 첫 날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새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값지게 살려고 애쓴다. 그렇다면 이 새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작정해야 하는가? 커다란 꿈도 많겠지만 우선은 조그마한 꿈을 갖자. 실천하지 못한 그 커다란 꿈 때문에 당년의 희망할을 더 이상 맛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니, 스스로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해야 할 일은 많다. 참다운 민주정치 질서의 회복도,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사회 건설도, 모두가 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하나,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다. 결례처럼 찢어지고 지저분해진 우리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불행스럽게도, 이 시대의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양적인 풀이로, 믿음(信)이란 사람의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서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 사이에 그렇게도 무성하게 꽃피었던 말들이 한낱 소리로 흩어지고 만 것을 우리는 안다. 특히 어른들의 말이, 지도자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니, <순 진짜 참기름>일랑 더 이상 팔지 말자.

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교구 공동체의 해를 지낼 우리 신앙인들부터가 신뢰회복에 앞장서자. 어쩌면 거창한 행사 하나보다 이 일이 더 값질 것이다.

숨 정 이 산책



힘있게 뽐시다!

제16차 세계 평화의 날(1983. 1. 1)을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정하신 주제

평화의 대화, 우리 시대의 도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절실한 주제이다.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 전쟁, 적개심 그리고 수많은 기회의 상실, 성과없는 협상이나 미결의 국제회의 등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평화의 도구로서 진정한 대화가 절박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 평화의 날'에 교황과 교회는 대화의 주제에 대한 반성을 분명하게 지속시켜 왔다. 특히 "평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작년 평화의 날 주제가 그러하다. 그 주제는 하느님 은총의 수직적 차원과 우리들 책임의 수평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대화는 이 두 가지 실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최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코네티컷에서의 강론,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연설, 국제연합(UN)총회 제 2차 군축회의에 보낸 메시지 등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교회의 두 가지 문헌 즉,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 「현대 세계의 사목현장」(Gaudium et Spes)과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당신의 교회」(Ecclesiam Suam)은 대화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목현장은 교회, 공동체, 사회 안에서 형제적 대화에의 투신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성실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추진하는 형제애의 상징이 된다..... 우리는 폭력도 기만도 없이 참된 평화 속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한다"(92항).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의 첫번째 회칙 「당신의 교회」에서 현대 세계의 대화의 의미를 발전시켰다. 그분은 말하기를 "대화는 어떠한 한계나 저의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대화는 그 본질상 단죄와 대립과 진부한 논쟁을 배제한다. 대화는 '평화, 은유, 현명, 신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다.

2. 오늘날 평화의 대화는 평화를 위한 분명한 정적이기보다는 세계에 하나의 도전을 걸어오고 있다. 첫째 도전은 논쟁을 수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대화는 폭력과 힘으로부터 진항하라는 도전이다. 둘째 도전은, 타인을 착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견의 자세와 공허한 수사(修辭)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진실한 대화 안으로 들어오라는 도전이다. 대화란 이기적인 목적

을 호도하려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사소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허한 토론의 걸치레가 아니라, 대화는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려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명쾌한 교환 과정이며 또한 그러해야만 한다. 오직 진실한 대화만이 우리 시대에 평화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사건들은 오직 진실한 대화만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창조하며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고 있다.

상호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도 현명하며, 성실하고 형제적인 대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세대간에, 사회 집단들과 국가들 간에, 종교와 이념 사이에서, 삶의 모든 차원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화는 교황 성하께서 세계 평화의 날 주제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도전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들입니다

(야고보 3,18)

謹賀新年

새해에도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구청 신부들, 직원 일동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검**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위크엔드** 간이북

 **런던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피노키오** 아동복

찰린저 주니어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율리안나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신집

숙녀화 · 아동화 · 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문식(베드로)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일관광

전화 ☎ 6666~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대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 교구청, 가톨릭 센타 전화번호 변경

교구청, 가톨릭 센타 : ⑤ 0041, 0042, 0043

센타 다방 : ⑤ 3201

평 협 : ④ 2935

국제 가톨릭 형제회 : ③ 5098

83년 1월 1일부터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센타 지성인 교리반 영세식을 마치고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본당을 초월하여 실시했던 지성인 예비자 교리반 107명(남 52, 여 55) 그 과정을 마치고 지난 12월 22일<수> 오후 7시 박 정일 주교님의 주례로 가톨릭 센타 강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동안 교리를 지도하셨던 5분 사제들과 총대리 신부님이 합동으로 미사를 거행하셨고 각 반을 이끌어 주신 봉사자들, 대부분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또한 아빠의 영세를 지켜보는 꼬마들의 영롱한 눈빛들로 강당은 부활의 빛을 더욱 환히 빛내고 있었다.

특히 이번 영세자 중에는 외곽 신자 가정에서 20명, 부부 6쌍이 영세하여 성가정을 이룸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종교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가정의 화목이 깨진 일도 있었다던 주부님들이 올해는 아빠와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성탄절 미사에 참여하셨으리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영세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 신자 가정의 고귀함을 새삼 깊이 느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쁨을 외곽 신자 가정에 심어 주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가톨릭 센타 교육국-

□ 유 장훈 신부님, 전 자석 총무
농촌 문제 연수회에 참석차 출국

1983년 2월 9일까지 서독 Akademie Klausenhof에서 개최되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성인 교육의 경험과 방법"에 관한 특별 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구 사무국장 유 장훈 신부님과 농민회 총무 전 자석씨가 29일 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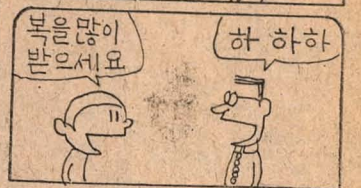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교황, 1983년을 성년(聖年)으로 선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2년 11월 26일 추기경 회의를 폐막하면서, 금년을 특별 성년으로 선포하였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1950년이 되는 해 1983년을 특별 성년으로 경축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업에 대한 보다 큰 공경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보통으로 성년은 25년마다 거행해 온 것으로, 구약성서가 전하는 「은총의 해」에서 유래하여 15세기부터 교회의 관례로 정착하였다. 성년에는 신자들로 하여금 특별기도와 성지순례 등을 통하여 대사(大赦)의 은총을 받게 하는데, 가장 최근의 성년은 1975년에 거행되었다.

요심이 (491.)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직원(제르니, 쓰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는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제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제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울겐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시오)

※ 구역전과 전고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총동지점 알

□ 마출·대어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파티복·페팩의상·부케 및 꽃다발·신부화장·아기드레스 전화 ⑥ 6951

신부의 집 정인기(논지노)

서울 신탁은행 관달로

동서관통도로

우체국 신부의집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슌 일체
- 커튼지

도매상

서울 주 단

☎ ②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남녀학생 자유복·

사보네 아동복·신사복

대도의류종합백화점

(구, 금광상회)

(교우 환영)

군산시 명산동 152번지

☎ 2-5530

김 광 수(라파엘)



1. 전주교구 각 꾸리아 단장 회의 : 2일 10시~오후 6시
장소-센타 회의실, 대상-꾸리아 단장, 회비-2천원
2. 제1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 2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천주교회
3.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기초코스) : 3일~6일 3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접수-교육국, M·B·W 추진회
4. 83년도 가톨릭 센타 예비신자반 모집 : 접수-교구청 교육국
5. 주교 상임위원회 및 200주년 기념 주교 상임위원회 : 5일~7일

(중앙)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희
수석보좌 신부 박인철
보좌 사도 회장 김인철

- ※ 성경읽기 : 요한 1서 1~5장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1월 9일 공식미사 후
 2. 성심부녀회 : 1월 7일 어머니미사 후
 3. M·B·W : 1월 10일~14일, 회비-미혼 1만원·기혼 1만5천원·본당보조 1만원, 접수-사무실
 4. 첫 영성체 교리시작 : 기간-1월 5일~30일까지, 시간-9시~10시, 매 주 화·수·목·금, 대상-국면생
 5. 성탄 영세반 : 사진 찾아주세요
 6. 성전 신축헌금 신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정남 (70만원), 배금순 (20만원), 유정례 (10만원), 박옥녀 (5만원), 김석일 (12만원), 장지연 (10만원), 신축헌금 합계 111,661,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04,965원 교무금 : 3,268,100원
성탄특별헌금 : 2,000,858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어머니 합창단 정기총회 : 11일 어머니미사 후
 4. 신년도 교무금 신임 : 신임을 못하신 분 15일까지
 5. 교적올 정리하십시오 : 이번 관공면집매 교적에 관한 지적을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정리하세요
 6.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요한 ②문정숙
성심미사 : 해설-이종관, 독서-①박기성 ②최정숙
저녁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이종승 ②강미숙
기도담당-유종영·서정남, 제물봉헌-한승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본당-373,450원, 아파트-6,470원
교무금 : 본당-2,596,700원, 아파트-67,000원
성탄축일헌금 : 본당-761,46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근하신년 ! : 주님의 은총이 항상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 주일학교 교사 회장-최광림, 총무-이미경, 구입원들 수고하셨습니다
 3. 83년 봉헌금 : 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축하합니다 : 71명의 영세자와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5. 예비자 모집 : 부녀반·직장인반·청년반 1월중 개강 예정, 많은 인도 받으시기를
 6. 성탄 이웃돕기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헌금-42만원, 백미-600kg
- 지난주 봉헌금 : 634,120원 성탄헌금 : 763,79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복자부녀회 : 3일 어머니미사 후
 3. 첫 칠레 6 : 7일 저녁 7시
 4. 중·고학생회 정기총회 : 9일 학생미사 후
 5. 봉헌금 : 20% 인상(십일조 정신으로 봉헌함시다)
 6. 각 브레시디움 간부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7. 병자봉성체 : 7일, 환자계신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
 8. 금주전례 : 해설-은희영, 독서-①천진 ②이명례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유기순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 692,510원 성탄봉헌금 : 658,800원
성가정주일 봉헌금 : 392,3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우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모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 다음주일 오후 2시(성당 회의실)
 4. 자모회 모임 : 4일 오전 10시(성당 회의실)
 5. 판공성사 못보신 분 : 매일 미사전에 성사주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6. 파년도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완납하여 주세요
 7. 할머니회에서 지난해 3월~12월까지 꽃대 20만원, 성탄 꽃대 331,000원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학생회 신임회장단 : 회장-김인철(미카엘) 부회장-이꽃대(크리스티나)
 9.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나섭 ②이정민
- 지난주 봉헌금 : 323,880원 교무금 : 1,304,000원
성탄봉헌금 : 520,980원

(숲정리)

전화 ①7366 수·유 ②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겸

1. 성령봉사자 세미나 : 9일~12일까지 시간-저녁 7시~10시, 참가비-5천원(사무실 접수)
 2. 성령기도회 : 매 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3. 평신도 강론 : 다음주 강삼(바오로)
 4. 예비자교리 : 매 주일 공식미사 후
 5. 판공성사 못보신 분 : 매 미사전에 교적정리와 금년도 교무금 완납 및 교무금 신임 바랍니다
 6.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이원일·노재두
차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박병열·임병택
기도-이철수·이종욱
- 지난주 봉헌금 : 178,780원 교무금 : 529,930원
성탄주일 헌금 : 426,575원 구유헌금 : 81,850원

(전동)

전화 신부 ①6208 사부 ③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9시 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가정회 : 1월 4일 오후 2시
 5. 중고생 동계 특별교리 : 3일~8일까지 오후 5시
 6. 판공성사 못보신 분 빨리 보세요 : 저녁미사 전·후
 7. 82년 교무금 납부 : 요망합니다-사무실
 8. 주일학교 교리반 방학 : 3시 어린이미사만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875,090원 교무금 : 6,028,500원
성탄금 : 1,370,870원

(파티마)

신부 ①0915 수녀 ②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밤 미사후 고문·감사·상임위원 전원 참석 요망
 2.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3. 금년은 교구 공동체의 해 : 우리 다같이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4. 83년도 교무금을 신청하십시오 : 1월 말까지 신청이 있으면 때에는 사도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인정함
 5.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의 정의와 열의로 본당운영에 큰 차질없이 지냈습니다
 6. 아직도 미납된 교무금이 있습니다 : 새 예산에 차질 없게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7. 성모회 정기총회 : 7일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43,950원 교무금 : 847,500원
성탄봉헌금 : 485,305원